

2019년 구로병원 1/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

안전한 병원 되려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.

2019년 구로병원의 안전과 직원안전을 논의하는 1/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가(이하 산안위) 행정동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. 1/4분기 산안위는 첫 회의인 만큼 노사 올 한 해 산안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하기로 했다. 산안위 안건은 지난 회의 시 이행 여부 점검을 중심으로 필요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.

사, 회의에서 논의되는 좋은 안건들을 속도 맞춰가며 노력하겠다.

노, 지속적인 병원 성장 속에서 묻힌 직원들의 바람과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만들자.

회의 시작 전 노사 대표 인사를 통해 한승규 병원장은“회의에서 나오는 안건들이 다 좋은 정책들인데 속도가 문제인 것 같다. 경영차원의 고민도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인력이 많은 것이 아니다. 병원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면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

노측 대표인 노재옥 지부장은“병원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직원들에



대한 보답이 미미하다. 결국 포탈게시판을 통해 불만의 글들이 올라오게 된다. 직원들의 고충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겠지만 하나하나 바꾸려고 한다. 산안위에서 직원안전 환자안전 시설안전등 안전한 병원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”고 말했다.

산안위는 오전 11시에 시작했으며 노동조합이 병원에 요청한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, 2018년 4-4분기 산안위에서 논의되었던 안건에 대한 점검 및 진행여부, 1-4분기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. 약 한 시간가량 진행했다.

노사, 산안위에서 논의된 안전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3개 병원 TFT를 구성하기로.

이번 산안위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3개 병원 노사 안전보건관리자가 참가하는 TFT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.

노동조합은 산안위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회의 사전에 3개 병원 실무자가 참석하는 TF를 진행해 결론을 도출하고 산안위에서 결정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요구했다.

지난 산안위에서는 안전에 대한 노사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이 길다보니,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하고 차기 회의로 넘어가는 등 현장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했다. 병원에서도 이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여 의견이 일치된 것이다.

산안위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2019년 1/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행점검 여부 및 논의 결과

안전	노동조합 질의	병원 답변
노동조합 자료요청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	【탄력스타킹 지급에 관한 건】 ① 작년 대비 지급 건수는 어떻게 되는가? ② 자료 요청 사항에 탄력 스타킹 지급 부서를 표기해주면 좋겠다. 그래야 많이 타가는 부서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. 또한 요청자료에 대해 회의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만나서 조율하면 회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.	① 작년 대비 30%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. ② 알겠다.
논의안건	노측 요구	사측 답변
1) 지난 산안위 이행점검 건	【간편복 병동 확대에 관한 건】 ① 병동 간편복 지급과 관련하여 시범 운영도 하고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진행상황이 어떠한가? ② 3개 병원 원장님들이 산안위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도 간호부 차원으로 논의 중 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. ③ 순회 시 간호사들의 요청이 많다. 대표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 해 달라. 【간편화 부서 확대에 관한 건】 ① 지난 산안위에서 공감한 것으로 이해됐으나 진행이 미진한 것 같다. TF에서 논의해 3개 병원 차원으로 규정을 만들고 개선하자. 【노사 TFT 구성에 관한 건】 직원 간편화 지급에 관해 논의해왔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. 질 개선을 포함하여 규정에 없는 부서에 대한 확대지급 및 간호부 추가 지급등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. 5월초쯤 만나서 논의했으면 좋겠다.	① 간호부 확인결과 샘플링 테스트까지 완료했으나 안암 안산 간호부 이견이 있어 논의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. ① 다른 병원과의 조율 문제인 것 같다. 병원차원에서는 진행을 다 한 것 같고, 의료원에서 검토중인 것 같다. ③ 알겠다. ① 규정 자체가 없으면 만들면 되는데 의료원 차원의 피복 규정이 있는데 이를 추가하러니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. 규정을 바꾸는 것은 노사 실무진이 만나서 얘기해봐야 할 것 같다. 알겠다. 적극적으로 참가하겠다.
3)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건	【시설팀 부서 통합에 관한 건】 ① 사무실 통합으로 인해 불만이 쌓이고,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해 조합원 자살 사건도 있었다. 이를 안암에서 논의했고, 원장님이 직무상 재해로 승인할 수 있게 도와주기로 했다. ② 시설팀 인력형편상 주말에는 1명이 근무하는데, 화재발생시 혼자서 컨트롤타워로서 전체상황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진압 업무까지 수행하는것이 불가능하다. 2인 1조였다면 더욱 빠른 마무리가 됐을 것이다. ③ 이와 관련하여 소방선임을 부팀장이 자격만 걸어놓고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. 선임에 따라 역할을 못한다면 직접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넘겨야 할 것이다.	현재 시스템 문제를 먼저 고치라고 지시한 상태고 개선점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다. 의견을 먼저 확인하고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겠다.
5) 근로자의 유해·위험 예방 조치에 관한 건	【보호대 지급 건】 근·골격계 질환 예방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손목 보호대 및 허리 보호대를 지급했으면 한다. 이를 위해 그 전에 지급이 필요한 부서 및 대상자 조사를 선행했으면 한다.	알겠다. TF에서 논의 하자.